특별기고

기업 동반성장, 숲의 상생과 조화를 배워라

이 정 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숲의 녹음(綠陰)이 한참 짙다. 작은 풀잎에서부터 큰 나무까지 숲의 구성원들 모두가 제 색깔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녹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숲이 구성되는 과정이 자못 오묘하다.

새싹이 돋을 때쯤 산을 가보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풀부터 싹을 틔운다. 큰 풀은 작은 풀이 싹을 다 틔울 때까지 기다리고 나무들도 역시 그렇다. 따사로운 햇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다. 숲에 다양한 종들이 살아가는 상생과 조화의 섭리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현금 보유액은 158조 원에 이른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2.9% 수준으로 절반 수준이다.

기업이 사업 잘해서 현금을 쌓아두고 종업원들 월급 많이 준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인들은 할 말이 많다.

수시로 강요되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폭만큼 대기업의 이익은 늘어났을 것이고, 돈이 되는 사업이면 업종이나 골목상권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시켜 이익의 규모를 키웠을 것이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숲에 거대한 나무가, 밑부분의 작은 나무나 풀들이야 어찌 되든 먼저 잎을 펼치고 햇볕을 독차지하면서 잘 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기업·경제계에서 숲의 상생과 조화의 섭리를 완벽히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불균형은 경제주체 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그래서 정권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의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기업들조차 위기의식을 갖고 자체 동반성장 관련 부서를 만들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중소 기업인의 하소연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대기업에서 아무리 '동반성장'이니 '대·중소기업 협력'이니 부르짖어 봐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구매담당 부서는 협력업체를 얼마나 말 잘 듣는 을(乙)로 만드느냐, 얼마나 납품단가를 후려치느냐에 성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연장자(年長者)를 대하는 예절교육이나 제대로 시켜 업무를 담당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실시한 '2·4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유로는 '대기업의 납품물량 감소'와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꼽혔다.

중소 기업인들을 분노케 하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성과 자율적 합의를 대명제로 두부, 순대, 단무지 등 77개의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 재합의 시점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77개 신청 품목 중 5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축소·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을 대기업들이 3년만에 없애자고 하는 것이다.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는 말로 부르짖는다고 이뤄지기 힘들다. 양보를 해야 하고 희생이 따라야 한다.

물론 우리 중소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숲에 다양한 생물이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 기업·경제계도 작은 기업에서부터 큰 기업까지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동반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청춘 톡·톡

중국과 한국 대학 문화 차이

송따이쉬(宋岱旭)
남부대 중국 유학생

저는 중국 칭따오(青島)에서 광주로 유학을 온 남자 대학생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한족(漢族)인 저는 어머니가 중국어 교사로 초청받아 광주에서 생활한 영향으로 광주의 화정남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그리고 서석중학교에서 1학년을 다녔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지금 남부대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한국의 대학 문화의 차이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그 사회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반면, 중국의 대학생들은 거의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국토가 작고 교통이 더욱 편리한 데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생들은 국토가 매우 넓은 중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집과 학교 간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지 않은 경우도 교통이 불편해 한국에서처럼 통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중국의 대학교는 통일된 학생 관리를 위해 거의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주를 요구합니다.

한국의 대학은 점심시간이 계절에 관계없이 정해지고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학은 계절에 따라 점심시간을 조절하고 그 시간이 길어 두 시간 이상입니다. 낮잠 혹은 쉬는 시간까지 고려한 배려 깊은 규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중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술을 먹는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생들의 여가생활은 술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밥을 먹는 곳과 술을 마시는 곳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술을 장소를 바꿔가며 2차뿐만 아니라 3차 심지어 4차까지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군데에서 취할 때까지 술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들은 학기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한 번씩 단체 회식을 가지는 것이 색다릅니다. 중국 대학은 학과 학생 전체가 모여 회식하고 여행하는 게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고,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고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학생들은 입학할 때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도 열흘 정도 군대식 훈련을 받습니다. 군부대에서 교관이 캠퍼스로 와서 학생들에게 똑바로 서기와 바른 보행 방법, 행군 요령 등을 연습시킵니다.

두 나라 대학의 급식실(식당)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공하는 식사 메뉴가 정해져 있어 반찬을 거의 고를 수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두세 가지의 식사-한식과 서양식 등을 제공하지만 반찬은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학의 급식실에서는 많은 창구들이 있습니다. 각 창구에서는 다른 음식들을 제공해 학생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자기의 교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학교 버스도 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 차량이나 학교 버스가 필요 없습니다. 걸어서 다니거나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중국 대학의 학생회 회장은 관리자(학교)의 감독과 영향을 많이 받고, 학생회에 참여하는 학생도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 대학의 학생회 회장선거는 대학의 매우 중요한 정치 활동으로서 정식적입니다. 회장선거 후보들은 홍보활동을 해야 하며, 학생회 회장은 중국 대학에 비해 더욱 더 학생들의 이익과 의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매년 각 학과에서 MT를 갑니다. 목적지와 스케줄은 각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또 그 비용을 학교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기회는 드물며 정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한국 대학의 운동회는 노래와 춤 등 이벤트를 곁들여 재미를 즐기면서 경기의 승부를 가립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락 프로그램 없이 각종 경기만 치러 매우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문화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릇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생활의 습관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꿔야 할 때다

허 정 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7년 미국에서 개봉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된 적이 있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세히 보면 미국 건강보험제도가 좋고 나쁨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영화에는 전기톱에 손가락 약지와 중지를 잘린 기술자가 접합수술을 받으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좌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인공은 중지 접합 수술비용으로 6만달러(약 6600만원), 약지 접합 수술로 1만2000달러(약 1300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돈이 부족해 결국 약지만 접합하고 중지는 매립지에 묻고 만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의 한 사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적용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덕택으로, 높은 보험료와 진료비를 부담하는 미국과는 달리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려하는 베트남 등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려고 방문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극찬함으로 미루어 보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부과 형평성 부재의 문제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동일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직장·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7가지 부담 유형으로 나눠져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기준으로 보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지역가입자 중 연간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해 소득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지역가입자 중 연간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과 자동차와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성·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가 아님에도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해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실직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했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자녀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반면 직장이 없는 부모의 자녀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형평성의 부재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 불합리한 부과기준은 1988년에 도입된 부과체계로 소득 이외에 유동성이 낮은 재산,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형평성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8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통해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기획단은 지난해 연말 안에는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안 도출 일정을 다시 올 9월로 미룬 상태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부과체계로 현재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본다. 개선안 최우선 과제는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으면서도 7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사람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과기준을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과 보장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계절없는 AI·구제역, 상시방역 필요하다

최근 경북 의성의 구제역에 이어 27일 함평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잇따라 발병해 당국과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봄철이면 사라졌던 AI와 구제역이 한여름 동시에 발생하면서 AI 종식 선언이 늦춰지고,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가까스로 인정받은 구제역 청정지역 회복도 2개월 만에 다시 잃게 됐다.

과거 AI는 2008년 5월12일, 구제역은 2002년 6월23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지만 7월에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겨울이나 봄에 발생해 여름 전에 끝났던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새가 떨어뜨린 바이러스가 축사에 남아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속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착질병화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토착화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축산농가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지금까지 1400만 마리의 오리와 닭이 살처분됐으며,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투입된 살처분과 보상금만 4조 원이 넘는다.

이제 방역당국은 AI와 구제역이 계절에 상관없이 창궐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사계절화의 원인 규명과 함께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상시 방역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자의 농장 출입 제한,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한편으로 전남은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1934년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점에서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백신 접종이 최고의 방법인 만큼 단 한 마리의 가축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후 아파트 전면적인 안전점검 실시해야

최근 광주지역의 한 아파트가 기둥 균열로 크게 흔들리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사고 노이로제'에 빠진 주민들은 그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 1981년 완공됐다. 지은 지 30년이 더 지난 셈인데 지난 5월 자체점검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하지만 검사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지하공간 기둥 2개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자체 인력이 육안으로 검사하다 보니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공 건축물은 해마다 정밀안전 진단을 받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는 입주자가 눈으로 대충 살피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비로소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러한 안전관리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

전문 식견이 떨어지는 일반 주민에게 점검을 맡겨서는 안 된다. 당연히 자치단체가 주도해 사전 검사 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관내에는 노후 아파트가 많다.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는 4곳, 30년 이상은 149곳이나 된다. 안전진단 결과 C등급(보통)과 D등급(미흡) 아파트도 31군데나 됐다. 이번에 붕괴 위험으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아파트의 경우 B등급으로 분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 이들 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규정의 보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머니볼과 기아

2011년 개봉했던 야구영화 '머니볼(Moneyball)'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지혜를 다룬 이야기다.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단 단장으로 나오는 주인공 브래드 피트는 운영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같은 가난한 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수를 선발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트의 실존 인물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구단의 빌리 빈 단장이다. 그는 1998년 이후 16년째 구단을 지휘하면서 저(低) 예산으로 고(高) 성과를 내는 마법을 보여주고 있다. 선수 연봉 총액은 8340만 달러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5위이지만 성적은 승률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빈이 타자를 고르는 방식의 핵심은 출루율이었다. 그가 구단을 처음 맡았을때만 하더라도 타자 선택의 기준은 타율이었다. 통상 안타를 많이 치는 선수는 비싸다. 그렇지만 안타나 볼넷이나 1루에 나가기는 마찬가지다. 빈은 여기에 착안해 타율 대신 출류율을 선택했다. 볼넷을 많이 고를 줄 아는 선수를 저렴한 몸값에 모은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2000~2003년까지 4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올랐고 2002년엔 메이저리그 최다승(103승)을 거뒀다. 미국 언론을 이를 '머니볼 혁명'으로 불렀고 이후 '머니볼'은 제한된 자금력으로 우수 선수를 고르는 과학적 구단 운영을 가르키는 말로 일반화 됐다.

기아 타이거즈가 4위 진입을 노리다 후반기들어 연패하며 가을야구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기아는 선수 연봉으로만 보면 9개 구단중 NC다이노스 다음으로 적어 머니볼 논리로 볼때 6위라는 성적을 탓할 수 만은 없다. 그렇지만 챔피언스필드를 건립할 때 300억 원을 투자했고 NC가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성적에 대한 변명은 필요없을 것 같다.

오클랜드의 성공 비결은 구단의 혁신과 감독의 선수단 운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도 팬들에게 가을야구를 선물하지 못한다면 3년차 감독은 어찌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